

시론

대전·충남 통합 추진 선언, 또 뒤쳐진 광주·전남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로 끝난 4일 오후 서울 행운역에서 열린 '2024년 11월 11일 대전시와 충청남도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통합 지자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 확보, 가칭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 구성,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노력, 조속한 통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의 요지다.

우 반길 일이다. 수도권에 있던 기업과 공장과 사무실이 이전해 오면서 사람들도 따라와 저절로 활력이 생긴다. 땅값도 올라간다. 서울 쪽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만 확실하게 만들어가면 지역 성장은 '따 놓은 당상'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가 동심원 형태를 그리며 공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지리적 인접성 덕분이다.

되면, 공간구조는 수도권, 대경권, 부경권 3개로 재편된다. 충청권은 3개 대도시권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 또한 분리된 현재의 2개 행정 규모로는 중앙정부에게 권한과 재원을 보다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몸집을 키운 '대구·경북·부산·경남'이 추동하는 행정통합 열차에 편승해야 충청지역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은 적절하다.

기고

중국 소비트렌드 맞는 맞춤형 수출전략 필요



김동철 전남도 중국사무소장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깊은 경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첨단 기술과 산업 역량을 제공해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현재까지 연평균 8.4%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소비재 수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2천300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화, 친환경 및 건강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중산층의 성장과 프리미엄 제품 선호, 그리고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로 여전히 K-컬처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아이돌 콘서트를 직관하며, 한국적인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중국 내 한국거리를 찾는다. 따라서 한국 디자인, 패키지를 활용한 한국 이미지를 반영하거나 최신 K-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社說

'12·3계엄 탄핵' 역량 총결집한 민주화 성지 광주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12·3계엄포고령에 대해 1980년 5·17 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로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5·18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니 집회 참여자들은 편하게 가져가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총장로의 한 카페는 "한 두분이 오셔서 50잔, 100잔을 나눠 달라고 했다. 지금까지 총 8명이 600잔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광주시·전남도 민생·시민 안전대책 빈틈 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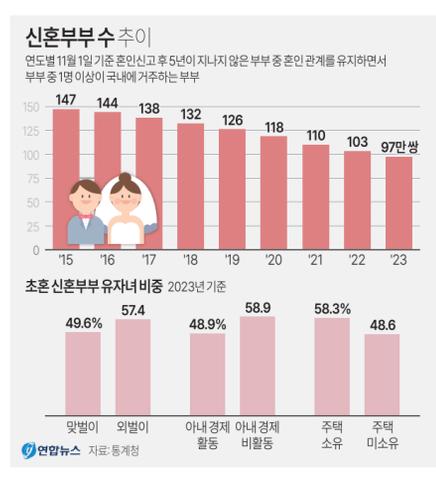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시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져 광주와 전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있다. 고환을·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경기를 진작하는 게 쉽지 않다. 맞춤 예산과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실질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붐파... '무자녀' 비중 절반 육박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으로 밀뒀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1년 차 신혼부부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5년 147만 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매년 5만~8만 쌍씩 줄고 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19만1천175쌍)는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전체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는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독자투고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중독 치료자도 늘어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천400여명에 이르며 마약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약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

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찾게 되며 중독되는 것이다.

생기는 것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10대 때부터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